

특집논문

여성주의적 지식과 지식 체계

유정월 | 질서를 질서로 인식하기: 설화의 실재론적/관념론적 분류
체계와 젠더 의식

김경미 | 조선 후기 남성 지식인의 여성 지식인에 대한 평가
- 임윤지당의 경우를 중심으로

서은주 | 비판적 지성과 젠더, 그 재현의 문제
- 박순녀의 1960-70년대 소설을 중심으로

질서를 질서로 인식하기: 설화의 실재론적/관념론적 분류 체계와 젠더 의식

유정월*

차례

1. 서론
2. 실재론과 관념론의 설화 분류 체계
 - 2.1. 실재론적 분류: 삶의 재현으로서의 설화
 - 2.2. 관념론적 분류: 변형과 반복의 자율적 설화
3. 분류 체계에서 여성 관련 설화의 자리
 - 3.1. 남성 주체의 대표성과 주변적 여성 관련 설화
 - 3.2. 탈젠더화 된 질서와 해체된 여성 관련 설화
4. 결론을 대신하여

<국문초록>

본고는 해당 분류 체계가 어떻게 질서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는지, 그 결과 전체 설화와 여성 관련 설화를 어떤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는지 살펴본다. 궁극적으로는 기존 설화 분류가 기반하고 있는 담론의 질서를 살펴봄으로써 여성주의적 설화 분류가 어떤 방식으로 가능할 수 있는지 가늠해 보고자 한다. 1970년 장덕순의 『한국설화문학연구』는 실재론적 분류를 수행한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분류 체계에서 설화라는 대상은 삶을 반영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1985년 조동일의 『한국구비문학대계』 분류는 관념론적 분류를 수행한 대표적인 예이다. 여기에서 설화는 사회의 산물이 아니라 고유한 논리를 가진 자율적 대상으로 이해된다. 구분되는 담론의 질서는 같은 대상을 다른 방식으로 인식하게 한다.

* 홍익대학교 국어교육과 조교수

『한국설화문학연구』의 분류는 현실에서 범주화된 연쇄나 사슬의 이미지를 가진다. 그러한 연쇄나 사슬은 그것이 이어지지 않은 세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여성 관련 설화는 바로 그러한 연쇄나 사슬이 끊긴 부분에 위치한다. 이 분류 모델에서 여성의 다양한 경험과 여성 인물의 풍부성은 누락되거나 축소된다. 『한국구비문학대계』의 분류에서 설화는 자체의 논리에 따라 일정 크기로 구획된다. 그러나 젠더로 구획된 구간이 없는 상황에서, 여성 관련 설화는 각각 다른 칸에 해체되어 임의적으로 배치된다. 설화 분류의 생산과 수용은 여성 설화의 누락과 해체를 묵인하고 승인하는 방향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여성 관련 설화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따라 축소되거나 주변부에 배치되기도 하고, 객관과 중립의 신화에 의해 탈젠더화 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호명되지 않고 그렇다고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로부터의 자유를 쉽게 선언하지도 않으면서 여성 관련 설화를 분류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고는 이를 위해 어떤 허구가 필요한가를 질문한다.

핵심어 : 『한국설화문학연구』, 『한국구비문학대계』, 실재론적 분류, 관념론적 분류, 분류 체계, 담론.

1. 서론

미셸 푸코의 『말과 사물』 서문은 보르헤스의 텍스트에 인용된 “어떤 중국 백과사전”으로 시작한다. 여기에서는 “동물이 a) 황제에게 속하는 것, b) 향기로운 것, c) 길들여진 것, d) 식용 젓먹이 돼지, e) 인어(人魚), f) 신화에 나오는 것, g) 풀려나 싸대는 개, h) 지금의 분류에 포함된 것, I) 미친 듯이 나무대는 것, j) 수없이 많은 것, k) 아주 가느다란 낙타털 붓으로 그린 것, l) 기타, m) 방금 향아리를 깨뜨린 것, n) 멀리 파리처럼

보이는 것”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것이다. 푸코는 이 니열을 통해 어떤 문화에서 존재물이 확산되고 배치되는 공간은, 우리가 명명하고 말하고 사유하는 공간과 동일하지 않음을 시사한다.¹⁾

중국 백과사전의 분류에 잘 드러나듯, 분류는 인간과 현실에 대한 특정 관점에 따라 자료들을 조직하는 행위이다. 분류 기준을 정하고 분류를 완성하는 것은 ‘사이의’, ‘벗어나는’, ‘모호한’ 텍스트를 양산한다. 분류는 대상물의 실상과 본질을 고스란히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질서 안에서 나름의 논리와 엄밀함을 부여받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은 일정한 목적과 시각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그 목적과 시각은 개인의 것이라기보다는 그러한 개인의 성과를 지지하고 인정하는 집단, 시대, 문화의 산물이다.

본고에서는 분류를 만들어가는 집단적이고 문화적인 인식론적 토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한 토대를 고려한다는 것은, 설화의 분류를 하나의 지식 체계로 상정하는 담론의 장을 고려한다는 의미이다. 본고는 설화의 분류를 둘러싼 일련의 언술들(분류의 기준, 원칙, 목적, 용어 등)을 하나의 담론으로 보고자 한다. 담론은 기호의 체계나 텍스트의 확장이 아니라 ‘말하고 있는 대상을 체계적으로 형성시키는 실천’이다.²⁾ 담론은 인간이 특정 대상을 특정한 방식으로 사유하게 만든다.

담론을 염두에 두면, 지식 산출에 관여하는 주체의 위상은 축소된다. 본고는 인정된 분류 체계를 성립시키는 것은, 국문학 전통의 흐름 속에서 위대한 학자의 등장이지 아니라, 특정 담론을 가능하게 했던 인식론적 장이라고 본다. 주체는 개인적 의식 활동의 수행을 통해 인식에 도달하거나 지식을 획득하는 존재가 아니라, 담론의 공간 내에 그에게 부여된 특정한 위치에서 가능한 것을 말하고 생각하는 존재이다.³⁾

1) 미셸 푸코, 이규현 역, 『말과 사물』, 민음사, 2012, 7-17쪽.

2) 담론의 구조는 특별한 맥락에서 형성되는 관념·견해·개념·사유 방식·행동 방식의 체계성 덕분에, 그리고 이러한 사유와 행동 방식의 효과들 때문에 감지될 수 있다. 사라 밀스, 김부용 역, 『담론』, 인간사랑, 1997, 35쪽.

3) 미셸 푸코에 따르면, 주체로서의 인간은 선형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나 권력과 같은 외부적 요인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다. 이 지식과 권력 역시 선형

본고에서는 어떤 설화의 분류 방식이 더 적절하거나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체계로, 하나의 질서로 받아들여지는 요인을 설명하고자 한다. 설화 분류 체계가 하나의 질서로 가능하게 하는 기저를 탐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자연적으로 생각되던 질서가, 사실은 구성된 것임을 보여줌으로써 또 다른 질서를 상상하기 위해서이다. 설화의 분류에 대한 담론은, 설화 자료를 특정 방식으로 인식하고 해석하도록 하는 실천적 힘을 가진다. 특히 본고는 그러한 실천적 힘이 여성 관련 설화⁴⁾를 어떤 방식으로 규정하는지 살펴보는 데 관심을 가진다. 여성 관련 설화의 자리는 담론의 통일성을 담보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설화 분류 체계가 구성되는 방식은, 그 체계 내에서 젠더에 대한 인식을 규정하기도 하지만, 거꾸로 그러한 인식은 해당 담론의 형성, 전개, 수용을 통제하는 기제를 명확하게 밝힐 것이다.

한국 설화의 분류에 대한 기존논의는 크게 두 가지 경향으로 정리가능하다. 아르네-톰슨의 세계 설화 분류안을 적용하고자 한 논의와, 그것을 비판하고 새로운 분류안을 모색하고자 한 논의이다. 장덕순, 조희웅, 최인학 등의 논의는 전자를, 조동일의 논의는 후자를 대표한다.⁵⁾ 본고에서는 장덕순의 『한국설화문학연구』와 조동일의 『한국구비문학대계』의 설화 분류를 연구 대상으로 한다.⁶⁾ 장덕순은 설화의 분류를 학문적 대상으로 여

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담론을 만들어내는 에피스테메 변화에 의존한다.

- 4) 여성이 주체 혹은 중요한 보조적 인물(적대자나 원조자)로 등장하는 설화를 말한다. 여귀·열녀와 같은 여성 형상이나 여성 인물이 주인공이거나, 여성의 지혜 등 여성적 자질이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 5) ‘장덕순’ 혹은 ‘조동일’은 독창적이거나 모순되는 체계를 창조한 인격에 대한 명명이 아니라, 해당 담론에서 한 위치를 차지하면서 그러한 담론을 실천한 주체를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이런 고유명사는 ‘작가’ 혹은 ‘저자’가 아닌 ‘담론적 저자’의 위상을 가진다.
- 6) 장덕순, 『한국설화문학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70; 조동일, 『한국구비문학대계』 자료 수집과 설화 분류의 기본 원리, 『정신문화연구』 25, 한국학중앙연구원, 1985, 3-16쪽;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설화유형표』, 『한국구비문학대계』 별책 부록1, 1989, 59-130쪽. 본고에서 ‘한국구비문학대계’의 분류 체계라고 할 때 그

기고 여기에 천착한 선구적 연구자 중 한명이다. 장덕순은 1970년 『한국설화문학연구』에서 설화를 9개 유형으로 구별하였다.⁷⁾ 이 논의는 아르네-툼슨의 분류 체계를 국내에 적용한 초기 사례 중 하나이다. 아르네-툼슨의 영향 관계가 국내에서 확인될 때, 그 매개적 역할을 한 연구자가 장덕순이기도 하다.⁸⁾ 조동일은 방대한 양의 『한국구비문학대계』 설화 자료를 분류하는 원칙을 세운 연구자로, 그의 분류 방식은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독창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설화문학연구』와 『한국구비문학대계』의 분류 작업은 그 위상이 다르다. 전자는 설화의 유형 구분을 통해 설화의 전체 면모를 보여주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후자는 목차를 통해 현시되면서 단순한 유형 분류를 넘어 실질적 효과를 가진다. 역할이나 효과는 다르지만, 두 텍스트는 설화 세계에 대한 체계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그런 점에서 본고는 이 두 텍스트가 ‘분류 체계’를 언표화 한 것으로 본다.

이 분류 체계들의 의의와 한계는 여러 논의에서 지적되었으며,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는 시도 역시 계속되고 있다.⁹⁾ 본 논의는 이들의 한계를

것은 정확하게는 분류의 원칙을 밝힌 조동일의 논문과, 그 원리를 실제 자료에 적용하여 자료를 정리한 『한국설화유형표』에서 추출한 체계이다.

- 7) 장덕순은 『설화문학개설』에서 설화를 신화, 전설, 민담으로 크게 3대분 하였다. 이 중 민담은 유형과 화소에 따라 다시 세분하였다. 유형에 따른 분류는 아르네의 민담분류법을 원용한 것으로, 동식물담, 본격담, 소화로, 아르네의 민담분류법을 원용하고 있다. 화소에 따른 분류는 기원, 탄생, 금기, 변신, 주술, 이계, 초인, 재기, 저능, 지략, 행운, 예언, 치복, 인륜, 응보, 퇴치, 외설, 종교, 결혼, 이조, 어문, 허풍, 형식 등으로 22개에 이른다. 장덕순, 『설화문학개설』, 이우출판사: 재관, 1985, 72-77쪽. 이에 대한 정리는 이한길, 『설화 분류 방법론 일고찰-강릉설화를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12, 강원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04, 188쪽 참고.
- 8) 조희웅이 1977년 『한국설화분류표』에서 행한 동식물담, 신이담, 일반담, 소화, 형식담의 5분류, 최인학이 『A Type Index of Korea Folktales(영문판)』에서 행한 동물담, 본격담, 소화 및 일화, 형식담, 신화적 이야기, 미분류담 등의 6분류도 아르네-툼슨과 같은 자장 안에 있다.
- 9) 서대석 편, 『문헌설화의 제재별 분류안』, 『조선조문헌설화집요1』, 집문당, 1992, 1-738쪽; 이인경, 「<한국 설화 분류 방안>의 쟁점과 전망」, 『국문학연구』 10, 국문학회, 2003, 7-26쪽; 김혜정, 「『한국구비문학대계(개정증보)』 설화 분류에 따른

확인하고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본고는 해당 분류 체계가 어떻게 질서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는지, 그 결과 전체 설화와 여성 관련 설화를 어떤 것으로 구성해냈는지 살펴보는 데 초점이 있다. 궁극적으로는 기존 설화 분류가 기반하고 있는 담론의 질서를 살펴봄으로써 여성주의적 설화 분류가 어떤 방식으로 가능할 수 있는지 기늩해 보고자 한다. 절차적으로 먼저 분류의 질서를 형성하는 대표적 방식을 살펴보고 그러한 인식적 토대를 문제시함으로써, 담론의 바깥을 사유해 보는 방식을 취한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2장에서는 분류의 기준과 용어를 중심으로, 그러한 언술이 설화를 어떤 대상으로 인식하도록 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어서 각 담론의 질서 내에서 여성 관련 설화들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지 살펴볼 것이다.

2. 실재론과 관념론의 설화 분류 체계

2.1. 실재론적 분류: 삶의 재현으로서의 설화

장덕순은 『한국설화문학연구』에서 설화를 내용에 따라 분류하면서 “대상, 형태 등이 참작”하고 “때로는 다른 기준에 따른 보조분류”를 활용하기도 한다. 주된 분류 기준은 ‘대상’과 ‘형태’이지만 다른 기준이 제시되는 경우도 있다. “설화대별의 대상을 보면, 신(A. 신화적 내용), 동물(B. 동물담), 인간으로 나누어지고 인간은 다시 일생에 걸친 면(C. 일생담), 인간 사이의 사회성에 관한 면(D. 인간담), 그리고 관념적 신앙 가치에 관한 면(E. 신앙담), 특수인물에 관한 면(F. 영웅담), 끝으로 인생의 오락성이 짙은 면(G. 괴기담, H. 소화, I. 형식담)”¹⁰⁾으로 구분된다. 이에 따라

문제와 개선방안, 『민속연구』 28,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2014, 261-298쪽; 이홍우 외, 「한국설화의 분류에 관한 제언: 형식담에서 유희담으로」, 『겨레어문학』 52, 겨레어문학회, 2014, 93-125쪽.

설정된 설화 분류 항목은 다음과 같다.

- A. 신화적 내용
- B. 동물담
- C. 일생담
- D. 인간담
- E. 신앙담
- F. 영웅담
- G. 괴기담
- H. 소화
- I. 형식담

『한국설화문학연구』의 분류 기준인 ‘대상’에 대해 먼저 살펴보자. 이는 해당 설화가 무엇에 관한 것인가 혹은 누구에 대한 것인가를 고려한 것으로, 이 기준을 적용한 결과 설화는 동물에 관한 이야기, 인간에 관한 이야기, 신에 관한 이야기로 구분된다. 괴기담이나 신앙담은 인간에 관한 것으로 분류 가능하지만, 동물이나 신에 관한 것일 가능성도 있다. ‘형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하는 언술은 없다. “관념인가, 구체인가, 진지한가, 오락적인가” 등이 ‘형태’라는 용어로 통칭되는 듯하다. 그렇다면 ‘형태’는 대분류가 아니라 중분류 이하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대상’ 혹은 ‘형태’ 혹은 다른 기준이 임의적으로 적용되는 이러한 분류 방식은 불완전하고 개연적일 수밖에 없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설화문학연구』의 분류는 아르네-톰슨의 분류와 일정 상관성을 가지면서 이를 변용한 것이다. 『한국설화문학연구』는 “신화와 전설과 민담을 설화 속에서 분류할 경우 이 삼자가 서로 넘나들기도 하고, 관점에 따라서는 삼자 사이의 구분이 애매한 경우도 있으므

10) 장덕순, 앞의 책, 12쪽. 필자가 이해를 돕기 위해 괄호 안에 설화 항목을 병기하였다.

로 삼자에 구애됨이 없이 구비문학의 산문형식이라는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관점 곧 설화라는 점에서 종합적으로 분류할 필요”를 제기하면서 톰슨의 『민속문학의 모티프 색인』을 그 적절한 예로 들고 있다. 아르네-톰슨 체계는 설화를 포괄적이고 전체적으로 분류한 업적으로 인식된다. 아르네-톰슨은 설화를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하였다. 동물담, 일반담, 소담 및 일화, 형식담, 미분류담이 그것이다. 여기에서 일반담의 외연은 넓은데, 이는 다시 마법담, 종교담, 사실담, 치우담으로 구분된다. 『한국설화문학연구』의 동물담, 소화, 형식담은 아르네-톰슨의 것과 동일하다.

그러나 이 분류 체계는 아르네-톰슨의 것과 똑같지는 않다. 아르네-톰슨 체계의 ‘미분류담’이 『한국설화문학연구』에서는 없어지고, ‘일반담’이 다른 것으로 대체 혹은 세분되었다. 미분류담을 없앤 것은 모든 설화들을 체계화하겠다는 의도이기도 하다. 이런 의도 하에 설정된 것이 다른 6개의 항목이다. 아르네-톰슨 분류 체계는 미분류담을 제외하고 일반담의 하위분류를 포함해서, 7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한국설화문학연구』는 아르네-톰슨의 설화에 없던 새로운 항목들이 설정되면서 9가지로 구성된다. 그 결과 이 두 분류 체계는 일대일 대응 관계로 설명되지 않는다. 『한국설화문학연구』의 분류 기준을 살펴보면 이 두 분류 체계 사이의 대략적 관계를 알 수 있다.

『한국설화문학연구』 분류 체계에서 ‘대상’으로 지칭되는 것은 설화 텍스트 내적으로 보면 사건의 행위 ‘주체’를 말한다.¹¹⁾ 이 분류 기준은 아르네-톰슨의 분류를 주체 중심으로 읽어내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동물담’은 동물이 주체인 설화, ‘일반담’은 인간이 주체인 설화로 이해한 것이다. 『한국설화문학연구』에서는 아르네-톰슨에서 명시적이지 않았던 다른 주체인 ‘신’을 상정하여 ‘신화적 내용’(이는 아르네-톰슨의 마법담이나 중

11) 『한국설화문학연구』에서는 주체가 기준이라고 밝히지는 않는다. 대신 대상과 형태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대상을 보면, 신, 동물, 인간”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대상’은 설화 향유자를 중심으로 한 용어이다. 설화 텍스트 내부의 사건을 중심으로 보면, ‘대상’은 ‘주체’와 같은 외연을 가진다.

교담과 유사한 외연을 가지는 것처럼 보인다.)을 항목에 추가한다. 인간이 주체인 ‘일반담’은 ‘인생담’과 ‘인간담’으로 세분된다.

아르네-톰슨 설화 분류 체계를 원용했다는 점을 상기하면, 『한국설화문학연구』는 일반담을 정교화 하는 데 관심을 가진 듯하다. ‘인생담’과 ‘인간담’의 세부 항목은 다음과 같다.

C. 인생담: 태몽, 이태(異胎), 출생, 수업 시련, 과거 출세, 병노, 사제(死祭) 및 소생 등

D. 인간담: 형제 우애, 부와 자, 효, 부부 열, 계모 처, 정육, 사회, 봉우, 우정, 내기 등

‘인생담’은 한 명의 인간을 기준으로, 그의 삶의 과정을 잉태에서부터 사후, 제사까지로 보고 이를 항목화 한 것이다. ‘인간담’은 복수적 인간을 기준으로 그가 가족과 사회에서 맺는 관계를 항목화 한 것이다. ‘인생담’, ‘인간담’ 등의 용어는 아르네-톰슨의 ‘일반담’이라는 용어에 없던 암시, 설화는 인간의 실제 삶을 반영한다는 암시를 가진다. 인생담과 인간담은 실제 인간의 삶의 과정, 가족과 사회 내 관계를 존재론적으로 분절한 것처럼 보인다.

인생담의 세부 항목은 탄생부터 사후까지 인간의 삶을, 시간적 계기로 나누는 것이다. 인간담의 세부 항목은 부-자, 부-부, 형-제, 처-첩 등의 수직적 관계 그리고 친우 등의 수평적 관계를 포함한다. 이러한 분류들은 시간적 연속과 관계의 논리에 따라 연결된 연쇄나 사슬의 이미지를 가진다. 이 이미지가 모든 삶의 과정과 모든 인간관계를 남김없이 보여줄 수는 없다. 연쇄나 사슬은 끊어지거나 성긴 부분이 있다. 후술하겠지만 『한국설화문학연구』의 분류는 모든 설화들을 낱낱이 열거하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

이상의 분류 체계를 통해 설화라는 대상은 어떻게 인식되는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설화의 유형 범주는 현실의 유형 범주와 유사하다. 인간,

신, 동물이라는 주체 설정이 그러하고, 인간의 삶의 계기적 연속성이나 다양한 관계망을 상징하는 것이 그러하다. 그 결과 이 설화 분류 체계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에서 실재론적(존재론적) 성격을 가진다. 여기에서 삶과 설화는 투명한 유사성을 가진다. 장덕순의 분류는 현실을 분절하고 명명함으로써 만들어진다. 그렇게 만들어진 분류 항목들은 ‘존재하는 사회적 사실’이 된다. 분류 자체가 세계를 표상하는 셈이다.

장덕순의 분류 체계가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식된다면 그 기준과 용어가 우리의 경험에 의해 자명한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인간에게는 삶의 단계가 있고 가족과 사회에서의 위치가 있다. 인간, 신, 동물 역시 현실에서 목도되거나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범주이다. 이 분류 체계를 질서로 인식하도록 만드는 것은 미리 주어진 현실 세계이다. 현실이 그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설화가 그렇게 존재하고 설화의 분류 체계가 그렇게 존재하게 되었다는 식이다.

2.2. 관념론적 분류: 변형과 반복의 자율적 설화

『한국구비문학대계』는 1980년부터 1988년까지 모두 82권으로 간행되었다. 이 자료집이 간행되고 나서 별책부록 「한국설화유형분류표」와 「한국설화색인집」이 간행되었고 「한국민요·무가유형분류표」가 최종 추가되었다. 처음 대상으로 삼았던 지역 가운데 40%에서 조사가 완료되어, 보고서가 간행되었다. 총서에 수록된 자료의 총량은 설화 1만 4,941편, 민요 5,922편, 무가 375편에 달한다.¹²⁾

이 방대한 양의 설화 텍스트를 분류하는 것은 큰 과제였다. 「한국설화유형분류표」는 설화를 중심으로 그러한 과제를 수행한 성과물이었다. 조동일은 「『한국구비문학대계』 자료 수집과 설화 분류의 기본 원리」에서 「

12) 「한국구비문학대계」,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DB.

한국설화분류표의 지침이 되는 사항들을 밝혔다. 여기에서 그는 “안티 아르네와 스티스 톰슨이 마련한 『민담 유형』, 스티스 톰슨의 『민속문학』 화소 색인과 같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던 설화 분류법”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표명한다. “안티 아르네와 스티스 톰슨의 『민담유형』은 국제적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 맞추어 분류하는 것이 필요할지 모르나, 한국 설화를 그 자체로 분류하는 데는 어느 모로 보거나 적합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아르네와 톰슨의 분류는 인도에서 아일랜드까지, 서양 민담만 대상으로 했으므로 보편적 의의가 인정되지 않는다.”¹³⁾는 이유이다. 아르네-톰슨의 분류가, 통용되는 범위에 있어서는 국제적이고 보편적이지만 그것이 만들어진 과정을 염두에 두면 특수하고 지역적임을 확인한 것이다. 이는 아르네-톰슨의 결과물이 ‘포괄적’이고 ‘전체적’이라 평가하던 이전의 논의와 구분되는 지점이다. 아르네-톰슨에 대한 비판적 인식 결과, 『한국구비문학대계』의 분류는 아르네-톰슨 분류를 원용하면서 한국 설화를 분류하려고 하였던 기존논의들과 단절을 시도한다.¹⁴⁾

『한국구비문학대계』는 분류를 수행하면서 한 편으로는 아르네-톰슨류의 귀납적 방식을 지양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구조주의적 방식을 지양한다. 클로드 브레몽이 이야기의 가능성을 탐색해서 일관된 도식으로 만든 『이야기의 논리』 역시, “자료 검증을 배제하여 공허”하다고 비판 받는다. 극단적 귀납과 연역을 지양하면서 “설화 분류를 제대로 하자면 자료를 귀납적으로 정리하면서 거기에 일정한 원리를 발견하고, 원리의 타당성을 자료와의 관계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한다. 조동일은 한국 설화 “그 자체”, “자료의 실상”¹⁵⁾을 중시하면서 귀납과 연역의 변증법을 시도하고자 한다. 보편에서 특수로, 귀납에서 연역과 귀납의 변증법으로

13) 조동일, 「『한국구비문학대계』 자료 수집과 설화 분류의 기본 원리」, 『정신문화연구』 25, 한국학중앙연구원, 1985, 9쪽.

14) 이러한 분류 체계에 대해서는 기준의 정당성, 접근성, 학계에서 통용되는 설화분류 체계와의 호환성, 세계 유형과의 보편성, 자료 수용의 개방성 등의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었다. 김혜정, 앞의 논문, 263-265쪽.

15) 조동일, 앞의 논문, 11쪽.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새로운 분류 체계가 탄생한다.

『한국구비문학대계』의 분류는 먼저 주체와 상황을 나누는 것부터 시작한다(주체가 특이한가, 상황이 특이한가). 주체가 특이한 설화는 그 정도에 따라 예사 사람보다 아주 뛰어나거나 모자라는 경우 1이나 2로, 주체가 예사 사람보다 조금 뛰어나거나 모자라는 설화는 3이나 4로 구분했다. 1은 신령이나 영웅이 싸워서 이기고 지는 판가름을 하는 설화이다(1. 이기고 지기). 2는 이인이나 바보가 예사 사람보다 뛰어나거나 모자라는 행위를 하는 설화이다. 이인 행세를 하는 바보, 바보처럼 보이는 이인 등이 등장한다(2. 알고 모르기). 3은 특이한 행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람들(박문수, 김삿갓 등)이 상대방을 속이거나 상대방에게 속는 이야기이다(3. 속고 속이기). 4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 선악 또는 정상과 비정상을 가리는 이야기이다(4. 바르고 그르기).

상황이 특이한 설화는 상황의 성격에 따라 둘로 나눈다. 사람과 사람 아닌 것들(자연물, 인공물, 도깨비 등)의 관계에서 특이한 상황이 조성되는 설화는 5나 6에, 사람들 사이에 조성되는 상황이 특이한 설화는 7이나 8에 소속시킨다. 5는 사람과 자연물, 인공물, 식물과의 관계 맺는 설화(5. 움직이고 멈추기), 6은 사람 아닌 것들이 동물, 귀신, 도깨비로 나타나는 설화(6. 오고 가기)이다. 사람들 사이에 조성되는 상황이 특이한 설화는 7과 8로 나눈다. 7은 예사 사람으로 설정된 주체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가져 행운 또는 불운에 이르는 설화(7. 잘되고 못되기), 8은 이야기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사이에 조성되는 상황이 특이한 설화(형식담. 8. 잇고 자르기)이다. 이렇게 『한국구비문학대계』는 8개의 대분류로 이루어진다.

주체와 상황을 중심으로 상정된 1에서 8까지의 상위유형은 각각 둘로 나누어지고, 다시 넷으로 분기된다. 예컨대, ‘1 이기고 지기’는 이길 만하기와 질 만하기로 나누어지고, 다시 ‘11. 이길 만해서 이기기’, ‘12. 이길 만한테 지기’, ‘13. 질 만한테 이기기’, ‘14. 질 만해서 지기’로 나누어진다.¹⁶⁾ 이러한 이분법은 +와 -의 이진법 기호로 표시되기도 한다. 이에 따르면 1유형에서는 ‘이기다’(+)와 ‘지다’(-)가 결합된다. 이어서 ‘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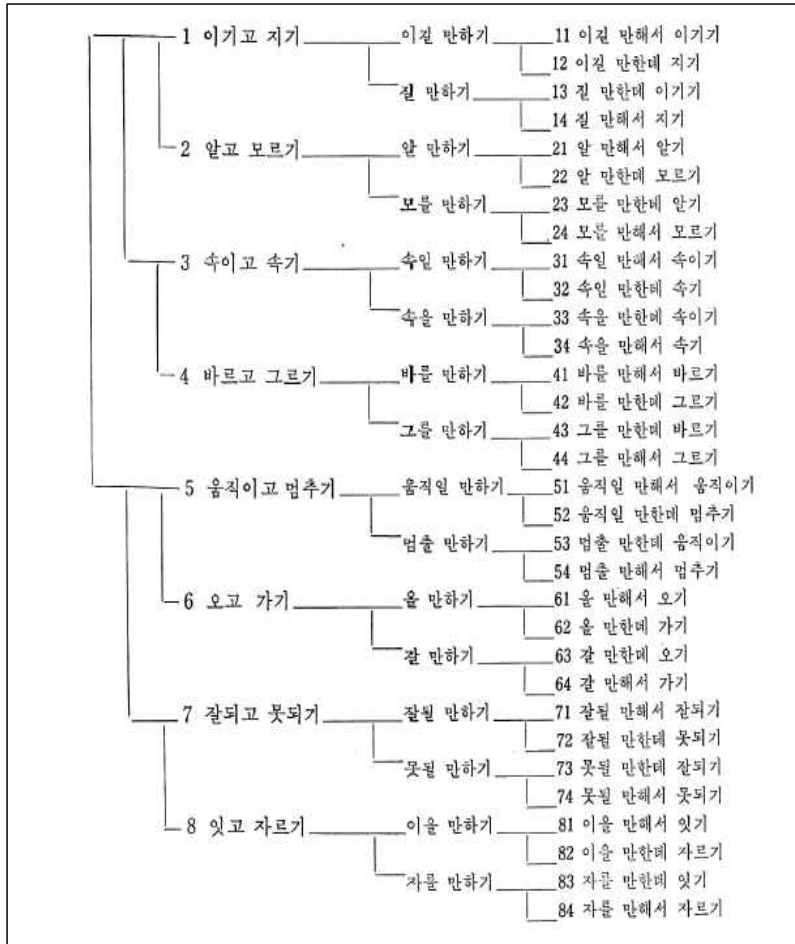
다(+)'는 '11. 이길 만해서 이기기'(+,+)와 '12. 이길 만한데 지기'(+,-)로, '지다(-)'는 '13. 질 만한데 이기기'(-,+)와 '14. 질 만해서 지기'(-,-)로 표현 가능하다.¹⁷⁾ 이렇게 대분류는 네 가지씩 나뉘면서 32개의 중분류를 만들어내며 이는 '11'처럼 두 자리 숫자와 함께 표기된다.

이분법이나 이진법에 기반해서 점차 복잡해지는 이러한 과정은 수형도로 적절하게 표현된다. 실제로 『한국구비문학대계』 자료 수집과 설화 분류의 기본 원리』에서는 분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수형도 형식의 도표가 설명과 함께 제시되었다. 수형도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모든 경우를, 나무에서 가지가 나누어지는 모양으로 그린 것이다. 이 분류는 나무에서 가지가 뻗어나가듯 2개에서 8개에서 32개로 뻗어나간다. 중분류 결과 만들어진 32개의 항목들은 설화 세계를 분할하면서 모든 가능성을 포괄하는 것처럼 보인다. 비록 현재 그 분류에 맞는 설화가 발견되지 않더라도 자리는 미리 배당되어 있는 셈이다.¹⁸⁾ 이 수형도는 설화 세계를 동일한 간격으로 구획하는 것처럼 보인다.

16) 조동일, 앞의 논문, 11-15쪽.

17) +와 -의 기호를 이용한 정리는 최래옥, 「설화 분류 체계의 총괄적 검토(2)」, 『정신문화연구』 27, 한국학중앙연구원, 1985, 55쪽.

18) 위의 논문, 55쪽.



여기에 구체적인 사례들이 결합되는 세 번째 소분류 단계가 이어진다. 소분류 단계는 세 자리 숫자로 표현된다. 예컨대 ‘1. 이기고 지기’가 대분류라면, ‘11. 이길만해서 이기기’가 중분류이고, ‘111. 신인이 출현해서 건국시조 되기’, ‘112. 호국신령이 나라 지키기’, ‘113. 뛰어난 인물 건국시조 되기’ 등이 소분류에 해당하는 것이다. 대분류와 중분류는 연역적으로, 소

분류 단계는 귀납적으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논리적으로 구획된 32개의 빈 공간을 구체적인 자료들이 채우는 형국이다.

대분류와 중분류의 항목 이름은 ‘-하기’로 끝나는데, 그 주체는 명시되지 않는다. 주체를 중심으로 이들 분류가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실제 『한국설화유형분류표』에서는 정확하게 그 주체가 누구를 의미하는지 알 수 없다. 성기열은 누가 주체인가를 중심으로 이 분류 방식을 재검토한 후 그 주체가 주로 ‘사람’인 것에 대해 조심스러운 우려를 표명했다.¹⁹⁾ “인간/비인간의 식으로 주체의 존재양식이 구분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성기열의 지적처럼, 이 체계의 대분류와 중분류에서 주체는 주요한 기준점이 되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연표화 된다. 가령 장덕순의 『한국설화문학연구』에서는 분류 기준이 되는 주체가 현실의 주체 범주와 동일하며, 현실의 주체를 직접 재현한 것처럼 보인다. 주체가 인간, 동물, 신으로 직관적으로 이해되며 이들은 대분류의 항목명으로 연표화 된다. 반면 『한국구비문학대계』에서 분류 기준이 되는 주체는 비워져 있다. 우리는 신, 인간, 동물 외 젠더, 민족, 나이, 문화나 역사를 기준으로 다양한 주체를 생각해볼 수 있다. 『한국구비문학대계』의 분류 원칙은, 주체의 문제에 있어 일견 공평한 것처럼 보인다. 어떤 현실의 주체도 항목명으로 직접 명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설화문학연구』의 주체 자리가 항상 꽉 채워져 있다면, 『한국구비문학대계』의 주체 자리는 비워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한국구비문학대계』의 분류 체계는 주체를 추론할 수 있는 장치를 내부에 가지고 있다. 가령 ‘1. 이기고 지기’라는 대분류 제목 아래에는 괄호가 있고, 그 안에 ‘신인, 건국시조, 영웅, 장수 이야기’라 명시되어 있다. 대표적 설화 주인공 혹은 기존 설화 유형과 연결하면서 주체를 유추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11. 이길 만해서 이기기’의 주체는 누구일까? 소분류 ‘111. 신인이 출현해 건국시조 되기’를 고려하면 이길 만해

19) 성기열, 「설화 분류 체계의 총괄적 검토(1)」, 『정신문화연구』 27, 한국학중앙연구원, 1985, 50쪽.

서 이기는 주체는 신(神)이다. 이렇게 주체 자리는, 소분류를 보고 추론하면서 채워진다. 빈 주체의 자리가 채워지는 양상은 현실을 참조하는 것이 아니라, 설화 주인공과 소분류 설화 항목을 참조하는 것이다. 『한국구비문학대계』의 설화 체계는 주체를 상정하는 데 있어 현실이 아니라 괄호 혹은 하위분류를 참조하도록 되어 있다.

『한국구비문학대계』의 작업이 질서로 인정된다면, 그것은 드러난 설화를 누락 없이, 완전히 열거하여 남김없이 분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 분류는 중립적이며 신뢰할 수 있고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객관성의 아우라는, 설화를 현실과 독립적 질서를 가진 체계로 수립해낸 결과 만들어진 효과이다. 현실과 유리된 질서로 이루어진 이 설화 분류는 앞서 실재론적인 것과 대립되며, 이는 ‘관념론적 설화 분류’라 할 수 있다. 이때 설화는, 설화로서의 ‘실상’을 가졌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자족적이며, 폐쇄적이고, 현실로부터 자율적인 것처럼 생각된다. 설화의 논리에 철저히 따르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분류 체계는 설화가 사회적 산물이 아닐 수 있음을 전제한다. 제반 과정을 통해 설화는 현실 혹은 사회와 거리를 둔 독립적 대상으로 인식된다.

3. 분류 체계에서 여성 관련 설화의 자리

3.1. 남성 주체의 대표성과 주변적 여성 관련 설화

분류 체계에서 의미를 부여받게 되는 것은 항목 자체가 아니라 항목이 차지하는 자리이다. 유사한 항목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체계에 속하는가에 따라 다른 의미 부여가 가능하다. 이제 여성 관련 설화를 중심으로 이들이 각기 다른 분류 체계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는지,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설화문학연구』의 분류에서 인생담은 인간 삶

의 과정을 시간적으로 분절한 것이다. 인생담의 세부 항목은 ‘태몽, 이태(異胎), 출생, 수업 시련, 과거 출세, 병노, 사제(死祭) 및 소생’ 등이다. ‘과거 출세’는 다시 ‘서민의 출세’, ‘시조의 출세’, ‘사기(詐欺) 출세’의 세 가지 하위항목으로 이루어진다. 어떤 계층이나 어떤 방식을 기준으로 세부 항목을 설정하건 여기에 여성 인물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야기는 배정될 수 없다. ‘과거 출세’가 남성 고유의 경험을 기반으로 설정된 설화 항목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여성 고유의 경험을 분절하고 명명한 항목들이 따로 있어야 하지만, 그러한 항목은 찾기 힘들다.

『한국설화문학연구』에는 ‘임신’ 혹은 ‘출산’ 대신 ‘출생’ 항목이 설정되어 있다. 이 두 가지는 유사하면서도 다르다. ‘출생’은 남성 인물의 생의 시작을 알리는 항목으로 기능한다. ‘임신’ 혹은 ‘출산’의 용어가 함축하는 것과 달리, 여성의 고유한 경험을 반영하지는 않는다. ‘출생’ 항목을 보면, 주몽 이야기가 있는데, 이 이야기는 ‘출생>이생>난생’에도 속하고 ‘출생>이생>일광생(日光生)’에도 속한다. 이렇게 주몽의 탄생은 이중으로 분류되지만 유화의 임신과 출산은 분류 항목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인생담의 분류는 인간의 일생이라기보다는 남성의 일생을 중심으로 분절된다. 이 분류에서 기준이 되는 ‘주체’는, 남성으로 대표되는 인간임을 알 수 있다. ‘인간담’에서 관계를 규정하는 용어들(형제, 부자 등) 역시 남성 대표성을 가진다.

『한국설화문학연구』 설화 체계는 남성 중심으로 항목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 관련 설화는 그러한 항목의 주변부에서 흔적으로, 행간으로 발견된다. 여성 관련 설화가 남성 ‘주체’를 기준으로 배치된 예들은 자주 발견된다. 가령 <선녀와 나무꾼>은 이계와의 관계 혹은 ‘선녀’라는 신이한 형상을 중심으로 분류될 가능성도 있는데, 『한국설화문학연구』의 분류 체계에서는 ‘결혼>선녀와 결혼’ 항목에 분류된다. 결혼의 주체를 나무꾼으로 보고 그가 선녀와 결혼한 이야기로 이 설화를 이해했음을 알 수 있다. <선녀와 나무꾼>의 경우 제목(화명)으로만 주인공을 짐작하기는 어렵기에 그러한 해석과 배치가 가능한 지점이 있다. 그러나 <우렁각

시> 역시 <선녀와 나무꾼>과 마찬가지로 <결혼>선녀와 결혼' 항목에 배치된 것을 보면, '우렁이'나 '선녀' 같은 여성 형상 자체는 분류의 기준이 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남성 주체는 텍스트의 화명을 넘어서는, 분류의 보편적 기준이 된다. <장화홍련>과 <아랑의 한>은 '부임하자 죽은 원' 항목에 분류된다. 원혼이 아니라 원님을 중심으로 분류된 것이다. 이러한 배치는 여성 관련 설화를 해석할 때에도 영향을 미친다. <선녀와 나무꾼>은 나무꾼을 중심으로, <우렁각시>는 농사꾼을 중심으로, <아랑설화>는 (피해자 혹은 해결자로서) 원님을 중심으로 해석하도록 유도된다.

여성 관련 설화가 분류 항목에서 누락되거나 남성 관련 항목에서 부수적 역할을 하는 것과 달리, 분류 항목에 여성 관련 설화가 주로 배치되는 사례도 있다. '부부 열'에는 '망부석, 절개 지킨 열녀, 열불열(烈不烈), 다부열녀(多夫烈女), 아내는 남, 딸은 헛것, 여자는 대기(大忌) 등'의 항목명에 여성 관련 설화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여성 인물의 유형과 행위를 가장 세분화 한 분류가 '부부, 열' 항목이라는 것은, 여성의 주요한 역할을 남편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재론적 설화 분류 체계 전반에서 여성 관련 설화는 대부분 억압당하거나 주변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에서 남성 관련 설화(이하 '남성 설화')와 여성 관련 설화(이하 '여성 설화')는 비대칭적으로 나타난다. 이 두 가지가 현실 세계를 양분하지 않기 때문에, 설화 체계에서 이러한 비대칭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그러나 남성 설화와 여성 설화의 비대칭은, 사실은 현실의 제도와 문화에서 남성과 여성이 처하는 불평등한 관계에서 기인한다. 설화를 현실의 반영으로 보고 그러한 설화의 자연스러운 체계로 존재론적 분류를 수행하는 것은 젠더적 관점에서 비대칭의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실재론적 설화 분류는 제도와 문화의 주체인 남성을 중심으로 설화를 분류한 것이다. 이러한 설화 분류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호명된' 것이며, 그러한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는 하나의 실천이기도 하다.

3.2. 탈젠더화 된 질서와 해체된 여성 관련 설화

『한국구비문학대계』의 대분류와 중분류는 연역적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소분류는 귀납적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앞서 『한국설화문학연구』의 분류 체계에 나타나는 남성 설화와 여성 설화의 비대칭성은 이 소분류에서도 마찬가지로 드러난다. 가령 ‘332-1 여자 난처하게 하는 내기(하문보기, 입 맞추기 등)’는 있어도 ‘남자 난처하게 하는 내기’는 없다. ‘333 엉뚱한 짓으로 여자 속여 이용하기(김선달형 및 유사 인물의 행위)’는 있어도 ‘엉뚱한 짓으로 남자 속여 이용하기’는 없다. 김선달에 해당하는 여성 트릭스터는 없기 때문이다. ‘432-10 며느리의 못된 행실 고치기’는 있으나 ‘사위의 못된 행실 고치기’는 없다. ‘441-10 행실이 음란한 아내’는 있지만 ‘행실이 음란한 남편’은 없다. 다만 『한국설화문학연구』에서는 이러한 비대칭성이 대분류와 중분류 모두에서 드러난다면 『한국구비문학대계』에서는 소분류에서 드러난다는 차이가 있다.

『한국구비문학대계』의 대분류와 중분류는 주체와 상황의 구분 하에 승패(이기고 지기), 지식(알고 모르기), 도덕이나 윤리(바르고 그르기, 속고 속이기), 공간(오고 가기) 등을 또 다른 기준으로 활용한다.²⁰⁾ 여기에서 ‘젠더’는 기준이 되지 않는다. 여성 고유의 경험을 탐구하는 설화들은 상위 분류에서 찾아볼 수 없다. 젠더가 상위 분류의 기준으로 상정되지 않은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해당 기준들이 어떻게 마련된 것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여러 각 편을 서로 견주어 보면서 공통적인 구성 요소를 발견할 수 있다.

공통적인 구성 요소를 추상화해서 그 외연을 넓히되 실제로 하는 이야기로

20) 주체와 상황이라는 이분법, 나아가 이것을 다시 세분하는 기준인 승패, 공간(오고 가기), 윤리(바르고 그르기, 속고 속이기), 지식(알고 모르기)은 근대 이후 이성적인 것으로 생각되었던 기준들이다. 이러한 기준이 가지는, 주체의 선형적 안정성과 이분법에 기반 한 이성중심주의 경향에 대해서는 후술이 필요하다.

서의 최소 요건을 남긴 것이 유형이다... 상위 유형은 설화의 존재 양상을 구조적인 관점에서 파악한 개념이면서 여러 유형의 내용을 추상화시킨 결과이기도 하므로, 연역적 추론과 귀납적 축적이 합치되어야 인정될 수 있다.²¹⁾

앞서 말한 것처럼 『한국구비문학대계』는 연역적 방법과 귀납적 방법을 모두 사용하여 설화를 분류하고 있는데, 이는 먼저 귀납적 방법부터 시작된다. 여러 설화 각편에서 공통점을 발견하는 과정이 추상화 과정보다 선행되기 때문이다. 최종적으로 선택된 기준들은 “귀납적 축적의 결과와 잘 맞아 들어가는 것은 택하고 어긋나는 것은 버”리면서 마련된 것이다. 여러 각편을 검토하는 최초의 귀납적 과정에서 ‘젠더’는 추상화를 시킬만한 공통적 기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선택되지 않았거나 버려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구비문학대계』에 산재하고 있는 여성 관련 설화를 상기 하려면, 분류 체계에 ‘젠더’ 기준이 부재하는 것은, 자료의 문제가 아니라 시각의 문제 때문임을 알 수 있다.²²⁾

젠더 뿐 아니라 신분이나 계급 역시 8개 대분류를 이루는 기준으로 작동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신분 혹은 계급의 기준은 중분류에서 종종 확인된다. 『한국구비문학대계』의 분류 체계가 확정되기 이전인 1984년 “한국 설화분류방법협회의”의 주제발표를 보면, ‘3. 속이고 속는 사연’에 대한 분류 시안이 나온다.²³⁾ 여기에는 ‘지위를 역전시키려는 사연’이, 혜택을 베푸려는 사연, 인정을 받으려는 사연, 이득을 얻으려는 사연과 함께 항목으로 상정되어 있었다. 이후 ‘속다’와 ‘속이다’의 네 가지 조합을 통해 항목이 결정되면서 이 시안은 실현되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의 ‘3. 속고 속이기’ 중 ‘33. 속을 만한테 속이기’는 지위와 관련된 이야기임을 쉽게

21) 조동일, 앞의 논문, 11쪽.

22) 이러한 시각의 부재 역시 개인의 특수성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 1970년대와 80년대 설화 분류를 규정하는 담론의 특수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23) 조동일, 「한국 설화의 분류 체계와 “속이고 속는 사연”」, 『구비문학』 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22-25쪽.

알 수 있다. 그 옆에 ‘김선달형 및 그 비슷한 하층 인물의 성공’이라는 표기가 괄호 안에 함께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 분류 체계에서는 하층 인물이 주체가 되는 설화 유형을 비교적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반면 『한국구비문학대계』를 활용해서 여성 관련 설화를 찾는 것은 신분 혹은 지위 관련 설화를 찾는 것보다 더 많은 노력을 요한다. 가령 『한국구비문학대계』에서는 열 관련 설화를 찾기 위해서 다른 보조적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 이인경은 “한국설화유형명칭색인”을 활용해서 자료를 검색한 결과 ‘열녀’라는 표제어로 411-9, 411-12, 413-10, 421-4, 421-6, 433-8, 433-9, 436-5, 441-12 유형을 찾았다. 그 외 ‘열불열’이란 표제어로 433-7 유형을 찾고, ‘개가’라는 표제어로 431-5, 711-6 유형을 찾고, ‘정절’이라는 표제어로 411-8 유형을 찾아 모두 14개의 열 관련 설화 유형을 찾을 수 있었다고 보고 한다.²⁴⁾ 이렇게 『한국구비문학대계』에서 하나의 여성 관련 설화는 여러 개의 표제어를 참고해야 접근할 수 있다. 『한국구비문학대계』에서 여성 관련 설화는 분류명을 부여받지 못하고 산재해 있다.

이는 여성 지혜에 관한 설화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아이의 지혜에 관한 설화는 쉽게 확인 된다. ‘232-1 중국에서 낸 어려운 문제를 푼 아이’, ‘232-2 원님을 굴복시킨 아이’, ‘322-4 자기보다 영리한 아이를 만난 박문수’가 그것이다. 지혜에 관한 설화의 핵심은 문제를 새로운 관점에서의 접근하는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아이의 지혜는 지혜의 본질과 특성을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러한 분류 항목의 명시는 이해 가능하다. 한편 남성의 지혜에 관한 설화는 ‘233-1 어려운 소송에 명판결하기’에서 잘 드러난다. 판결의 주체가 남성 관원이기 때문이다. 반면 여성의 지혜담은 열 관련 설화처럼 여러 가지 분류 항목을 참조해야 찾을 수 있다. ‘232-2 어렵지 않게 범인 잡는 지혜’의 일부 각편, ‘233-5 백지 소지 보고 명판결한 원님’의 일부 각편(원님의 딸이나 부인이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이 여기

24) 이인경, 앞의 논문, 12쪽.

에 속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구비문학대계』의 분류 체계에서는 주체를 알기 위해서 소분류에 나타난 설화의 주인공을 참조하여 소환해야 한다. 이때 남성 주체는 쉽게 소환 된다. 그러나 여성 주체는 쉽게 소환되지 않는다. 소분류가 기존의 설화 유형을 그대로 이용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설화문학연구』를 비롯하여 기존 설화 체계에서 지혜 관련 설화는 이지담, 판결담으로 구분되는데 이런 용어들은 『한국구비문학대계』의 소분류에 그대로 계승된다. 탈젠더화 된 『한국구비문학대계』의 기준들은 중립적이며 객관적인 분류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성 관련 설화를 지우고, 나아가 해체한다.

이 분류 체계에서는 젠더 중립성으로 인해 해석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가령 ‘4. 바르고 그르기’ 가운데 ‘43 그를 만한테 바르기’에는, 가족이나 부부 관련 설화들이 다수 포진한다. 그러나 ‘바르고 그르기’라는 대분류에 속하기 때문에 이 설화들은 누가 바르고 누가 그른가를 중심으로 읽게 된다. 가령 ‘432-9 행실 나쁜 배우자 길들이기’를 보면, 누가 누구를 길들이는 이야기인가를 고려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432-9-1은 남편이 바람난 아내를 바로잡는 이야기이고 432-9-2는 부인이 노부를 홀대하는 남편을 바로잡는 이야기이다. 432-9-3은 부인이 기생에게 빠진 남편을 바로잡는 이야기, 432-9-4는 남편이 어리다고 홀대하는 부인을 바로잡는 이야기, 432-9-5는 남편이 사나운 부인을 길들이는 이야기, 432-9-6은 부인이 도벽 있는 남편을 바로잡는 이야기로 읽힌다.

이 설화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가족 관계에서 파생되는 여러 갈등 양상과 그러한 갈등을 야기하는 제도적이고 문화적인 맥락이 드러남을 알 수 있다.²⁵⁾ 그러나 ‘바르고 그르기’ 혹은 ‘행실 나쁜 배우자 길들이기’라는

25) 이인경 역시 ‘바르고 그르기’에 나타난 가족 관계를 중심으로 유사한 문제를 지적 하면서 이 텍스트들을 선악담으로 판정하는 것은 주체를 잘못 파악한 것이라 본다. 또한 여기에는 ‘좋은’ 결과를 얻기만 한다면 그것이 ‘바른’ 것이라는 논리가 전제되어 있다고 언급한다. 이인경, 앞의 논문, 10-11쪽.

항목의 설정은, 부부 사이의 갈등과 그것을 야기하는 상황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 내적 행위에 따라 누가 옳고 그른가를 문제시한다. 이러한 설화는 현실의 문제(남성과 여성의 다른 섹슈얼리티와 그것을 양산하는 제도와 문화 혹은 젠더 인식 등)와 관련을 가지기보다, ‘바르’거나 ‘그른’ 결과를 중심으로 이해된다. 관계의 문제가 ‘정의의 윤리’²⁶⁾로 재단된 결과이다.

『한국구비문학대계』의 분류 체계에서 여성 관련 설화는 해체되거나 오해된다. 이는 모두 하나의 문제에서 기인하는 듯하다. 설화 분류 체계가, 자체의 논리를 가진 자율적 대상인 설화를 토대로 설정된 것처럼 언표화되기 때문이다. 관념론적 설화 분류의 결과 『한국구비문학대계』의 분류 기준인 주체는 현실에 존재하는 주체 범주와는 무관한, 텅 빈 주체가 된다. 현실에 존재하는 ‘여성’을 참조하면서 항목들이 마련되지 않았기에 여성 관련 설화는 분류 항목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여성 관련 설화가 여러 범주를 넘나들며 해체되어 있기에 그 설화들은 젠더가 아닌 다른 ‘보편적’ 기준으로 분류되고, 해석된다. 텍스트를 해석하는 젠더 범주의 해체는 필연적으로 텍스트에 대한 오해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4. 결론을 대신하여

앞서 언급한 것처럼 1970년 장덕순의 『한국설화문학연구』는 실재론적 분류를 수행한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분류 체계에서 설화라는 대상은 삶을 반영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1985년 조동일의 『한국구비문학대계』 분류는 관념론적 분류를 수행한 대표적인 예이다. 여기에서 설화는 사회의 산물이 아니라 고유한 논리를 가진 자율적 대상으로 이해된다. 구분되는 담론의 질서는 같은 대상을 다른 방식으로 인식하게 한다.

26) 캐럴 길리건은 『다른 목소리로』에서 남성의 윤리를 ‘정의의 윤리’로 규정하였다.

『한국설화문학연구』의 분류는 현실에서 범주화된 연쇄나 사슬의 이미지를 가진다. 그러한 연쇄나 사슬은 그것이 이어지지 않은 세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여성 관련 설화는 바로 그러한 연쇄나 사슬이 끊긴 부분에 위치한다. 이 분류 모델에서 여성의 다양한 경험과 여성 인물의 풍부성은 누락되거나 축소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국구비문학대계』의 분류에서 설화는 자체의 논리에 따라 일정 크기로 구획된다. 그러나 젠더로 구획된 구간이 없는 상황에서, 여성 관련 설화는 각각 다른 칸에 해체되어 임의적으로 배치된다. ‘연쇄’는 여성 관련 설화를 누락시키거나 축소시키고, ‘도표’는 여성 관련 설화를 해체하고 오인하게 한다. 설화 분류의 생산과 수용은 여성 설화의 누락과 해체를 묵인하고 승인하는 방향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실재론적 설화 분류를 수행하면서도 연쇄나 사슬의 이미지가 아닌 분류 체계, 관념론적 설화 분류를 수행하면서도 기계적 구획을 하지 않는 분류 체계는 가능할까? 혹은 실재론적이거나 관념론적이 아닌 다른 새로운 설화 분류 담론은 없을까? 만약 그러한 분류 체계가 가능하다면 여성 관련 설화는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게 될까? 이에 대한 논의는 좀 더 지면을 할애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여기에서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분류가 설화에 대한 객관적 인식의 결과물이거나 설화에 대한 객관적 인식을 양산하는 도구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분류는 인식 주체가 위치하는 담론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로 인해 힘과 권력을 가진다.

여성 관련 설화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따라 축소되거나 주변부에 배치되기도 하고, 객관과 중립의 신화에 의해 탈젠더화 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호명되지 않고 그렇다고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로부터의 자유를 쉽게 선언하지도 않으면서 여성 관련 설화를 분류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현실(의 이데올로기)을 절대화하지도 않고, 현실을 무시하지도 않는 분류가 필요한 것이다. 가령 설화에서 여성은 모성, 열녀, 양처로만 규정되지 않으며 그것으로부터 탈주하고자 하는

존재로도 규정될 수 있다.²⁷⁾ 궁극적으로는 설화에서 여성의 욕망, 자질, 형상, 유형 등이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다는 것을, 분류 체계를 통해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분류 작업이 현실의 반영이나 이성의 논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허구라는 것을 먼저 인정할 필요가 있다. 분류를 위해서는 허구가 아닌 것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허구가 필요한가를 물어야 한다. 가부장제 신화도 아니고, 객관주의 신화도 아닌 허구가 필요하다. 성별 위계와 고정 관념에 균열을 가하는 허구가 필요하다. 새로운 경계를 그리면서도 또 다른 하위 주체를 타자로 출현시키지 않는 허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1. 자료

장덕순, 『한국설화문학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70, 1-570쪽.

조동일, 『『한국구비문학대계』 자료 수집과 설화 분류의 기본 원리』, 『정신문화연구』 25, 한국학중앙연구원, 1985, 3-16쪽.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설화유형표』, 『한국구비문학대계』 별책부록1, 1989, 59-130쪽.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DB.

27) 『악녀의 재구성』의 목차는 본격적인 설화 분류 작업은 아니지만, 현실(의 이데올로기)을 절대화하지도 않고, 그것을 무시하지도 않는 분류가 가능함을 보여준다. 가령 <곰나루 전설>의 곰 여성은 모성으로부터의 탈주를, 성세창의 여종은 열녀로부터의 탈주를, 이기축의 처는 양처가 무엇인지를 재고하게 하는 여성이다. 홍나래 · 박성지 · 정경민, 『악녀의 재구성』, 들녘, 2017, 1-312쪽.

2. 단행본

- 서대석 편, 『조선조문헌설화집요1』, 집문당, 1992, 1-738쪽.
홍나래 · 박성지 · 정경민, 『악녀의 재구성』, 들녘, 2017, 1-312쪽.
미셸 푸코, 이규현 역, 『말과 사물』, 민음사, 2012, 7-17쪽.
사라 밀스, 김부용 역, 『담론』, 인간사랑, 1997, 35쪽.

3. 논문

- 김혜정, 「『한국구비문학대계(개정증보)』 설화 분류에 따른 문체와 개선방안」, 『민속연구』 28,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2014, 261-298쪽.
성기열, 「설화 분류 체계의 총괄적 검토(1)」, 『정신문화연구』 27, 한국학중앙연구원, 1985, 49-52쪽.
이인경, 「〈한국 설화 분류 방안〉의 쟁점과 전망」, 『국문학연구』 10, 국문학회, 2003, 7-26쪽.
이한길, 「설화 분류 방법론 일고찰-강릉설화를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12, 강원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04, 185-213쪽.
이홍우 외, 「한국설화의 분류에 관한 제언: 형식담에서 유희담으로」, 『겨레어문학』 52, 겨레어문학회, 2014, 93-125쪽.
조동일, 「한국 설화의 분류 체계와 “속이고 속는 사연”」, 『구비문학』 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최래욱, 「설화 분류 체계의 총괄적 검토(2)」, 『정신문화연구』 27, 한국학중앙연구원, 1985, 53-59쪽.

Abstract

Recognizing Order as Order

: Realist/Idealistic Classification Systems and Gender Perception in Folk Tales

Ryu, Jeong-Wol

This study examines how the classification system is accepted as something with an order and how folk tales related to women and folk tales as a whole are perceived. The ultimat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order of the discourse on which the preexisting folk tale classification is based and to seek methods of categorizing women-oriented folk tales. Duk-Soon Chang's *Study on Korean Folk Tale Literature* (1970) is a representative example of realistic classification. In this classification system, folk tales are perceived as something that reflects life. Dong-Il Cho's *Comprehensive Collection of Korean Folklore Literature* (1985) categorization is a typical illustration of the idealistic classification. Here, folk tales are understood not as products of society, but as autonomous objects with innate reasoning. The order of distinct discourses allows the same object to be recognized in different ways.

The *Study on Korean Folk Tale Literature* classification contains an image of a categorized linkage or a chain of reality. Such a linkage or chain is bound to reveal a world where connection does not occur, and women-related folk tales are located at the disconnected points of such a linkage or chain. In this classification model, women's various experiences and richness in

character are omitted or downsized. In the *Comprehensive Collection of Korean Folklore Literature* classification, folk tales are zoned into certain sizes according to their own logics. However, with the absence of a separate section for gender, folk tales related to women are dismantled and arranged randomly into different sections. The production and acceptance of a folk tale classification have followed a long path in the direction of planning and approving the omission and dismantlement of women folk tales.

Women-related folk tales are often scaled down or posited in the periphery, depending on the patriarchal ideology. At times, they seem degenderized due to myths related to objectivity and neutrality. There is a need for a method of classifying women-related folk tales without being indicated by or easily declaring freedom from patriarchal ideology. Lastly, for classification, this study questions the type of fiction of which we are in need, instead of something that is non-fiction.

Key words : *Study on Korean Folk Tale Literature*, *Comprehensive Collection of Korean Folklore Literature*, realistic classification, idealistic classification, classification system, discourse

■ 본 논문은 2017년 11월 25일에 접수되어 2017년 11월 29일부터 12월 22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17년 12월 26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